

보물 중의 보물

- 군사사는 군사이론의 뿌리 -

김재창*

서언

「군사」지 제100호 발간의 경사를 맞이한 군사편찬연구소 김철수 소장님과 모든 연구원 및 직원 여러분께 축하의 인사와 함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찬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사」지는 1980년 12월에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36년간 꾸준히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는 국내 학술지 가운데 그 권위를 인정받은 ‘등재 학술지’의 반열에 올랐으며, 명실공히 ‘군사사’뿐만 아니라 ‘군사학’ 분야에서도 대표적인 학술지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연구소에 봉직하셨던 역대 연구소장, 연구원, 직원, 그리고 훌륭한 연구논문들을 투고해 주신 학자 여러분들이 함께 이루어 낸 빛나는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군사」지가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서, 국가 안보의 진로를 개척하는 데에 이론적인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방향타의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 「군사」지가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여, 세계적인 학술지로 발돋움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 한국 국방안보포럼 공동대표

1. 두 가지 전략사상

일반적으로 전장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전투력은 보존하면서 적의 전투력을 무력화해야 합니다. 적의 전투력을 무력화하는 방법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적의 전투력을 파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적의 지휘관이나 병사들이 전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자는 적의 물리적 전투력을 대상으로 전략을 구상하기 때문에 ‘전투력중심 전략술’로 분류하고, 후자는 적 지휘관이나 병사의 의지에 초점을 맞추어 전략을 구상하기 때문에 ‘의도중심 전략술’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 전략술이 상호 배타적인 것은 아니지만, 전통적으로 서양의 전략가들이 ‘전투력중심 전략술’을 발전시켜왔는데 반해, 동양의 전략가들 중에는 ‘의도중심 전략술’의 대가(大家)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략가 손자는 대표적인 ‘의도중심 전략가’입니다. 그의 전략은 제일 먼저 별모(伐謀)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적의 계략을 알아내어 그 의도 자체를 공격하라는 뜻입니다. 일단 별모에 성공하면, 굳이 별교(伐交)나 별병(伐兵)은 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별모(伐謀)의 극치는 적이 물리적으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항복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바로 손자가 선지선(善之善)이라고 가르친, 소위 부전이 굴인지병(不戰而屈人之兵), 즉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이런 전략에 익숙해 있는 전략가의 눈은, 항상 적장(敵將)의 가슴속을 향하고 있습니다. 적장의 생각이 어디에 머물러있는지를 알아내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적의 전차나 전투기의 숫자나 배치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소위 이소제대(以小制大), 즉 작은 것이 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물리적 계산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1950년 10월, 실제로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중공군이 압록강을 넘어온 것입니다.

2. 전투력중심 전략과 의도중심 전략의 대결

여기서 6.25 전쟁사의 일부를 재조명해 보려합니다.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했을 때에, 북괴군의 전투력은 사실상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북쪽으로 추격 작전을 시작하였고, 10월 19일 평양을 탈환하였습니다. 그때에 맥아더 장군은, 추수감사절 이전에 한국전을 종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는 전형적인 ‘전투력중심 전략가’였습니다. 당시 그는, 중공이 한국전에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모택동이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공군도 없고 해군도 없고 체계적인 군수지원 조직도 없이, 수류탄과 소화기로 무장한 경비병부대만 가지고, 당시로서는 최고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미군을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스탈린의 요청을 받은 모택동은, 참전을 결심하기 전에 며칠 밤을 꼬박 새워가면서 고민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결론은 ‘이소제대(以小制大)’, 즉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논리로, 중공군의 사령원이었던 팡덕회도 그런 전략과 그런 작전술을 바탕으로 중공군을 이끌고 압록강을 건너온 것입니다.

1950년 10월 이후 한국전은, 대표적인 ‘전투력중심 전략가’와 전형적인 ‘의도중심 전략가’가 맞붙어 싸웠던 대결의 현장이었습니다. UN군

사령관은 전차, 대포, 전투기를 다 동원하여 적의 주력을 격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문제는 공격할 표적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진에는 전차도 안 보이고, 대포도 안 보이고, 병력이 집결해있는 것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공격해야 할지를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만 되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피리를 불고 팽과리를 치면서 수류탄을 들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중공군의 야습을 당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연대 본부가, 때로는 사단 사령부가 적의 야습에 포위되어 온갖 장비를 다 남겨둔 채, 제대로 한번 싸워 보지도 못하고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분석해 보니, 그 모두가 팽덕회의 철저한 ‘의도중심 작전술’이었습니다.

그해 12월 31일, 전선은 38도선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불과 두 달 동안, 압록강에서 임진강까지 걸어 내려온 중공군의 외모나 전투력은 사실은 한심한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팽덕회는 거기서 겨울을 나고 다음해 봄에 작전을 계속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모택동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해를 넘기지 말고, 당장 38도선을 넘으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팽덕회는 할 수 없이 그날 밤 38도선을 넘었습니다. 참 내키지 않는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서울을 공격해서 들어와 보니 의외로 UN군은 다 철수하고 없었습니다. 너무 쉽게 서울을 점령했지만, 사실은 그때부터 그는 고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공권을 포함하여, 그렇게 막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는 UN 군이, 왜 서울을 그렇게 쉽게 내어놓고 도망가 버렸는지, 적장(敵將)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형적인 의도중심 전략가였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UN군의 작전은, 그 내용이 마치 모택동이 가르쳐준 16자 전법의 첫 네 글자처럼, ‘적진아퇴(敵進我退) 즉 적이 덤벼들거든 너는 물러서 버려라. 그래서 적으로 하여금 아무도 없는 텅 빈 진지를 향해 포를 쏘고 달려가게 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팽덕회는 적의 지휘관이 자기를 남쪽으로 유인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불과 3개월 전에 맥아더가 김일성의 군대를 낙동강까지 유인해놓고 인천상륙을 한 것처럼, 자기를 남쪽으로 끌고 내려가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 중공군의 병참선은 이미 길게 늘어져 있었고, 병사들은 혹독한 추위에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 다음 상황이 불현듯 눈앞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적피아타(敵疲我打)’, 즉 “적이 피로해 하거든, 그때 공격하라”는 전법을 불원간 당하게 될 것이 분명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도중심 전략가 팽덕회로서는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모택동에게, 거기서 멈추어 서자고 건의하였습니다. 그때까지, 트루먼의 속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던 또 다른 ‘의도중심 전략가’ 모택동이 한 번 더 호통을 쳤습니다. 한강을 넘어 내려가서, 쉬든지 말든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팽덕회도 이번에는 쉽게 복종만 하고 따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적장(敵將)이 중공군을 남으로 유인하여 끌고 내려가려는 의도(意圖)가 너무나도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는 한강을 건너가기는 하겠지만, 거기서 멈추어 정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한 후에 도하작전을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UN군은 그때까지, 중공군의 공세를 저지할 체제를 갖추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사령관 릿지웨이가 “Maximum punishment, maximum delay”를 외치고 다녔지만, 300km나 계속 남쪽으로 밀려 내려오기만 했던 대부대가 일시에 정지하여, 북쪽으로 돌아서서 방어선을 구축하는 것 자체가 어려웠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다가왔습니다. 갑자기 중공군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렇게 끈질기게 내려오던 중공군이 어디로 사라져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각 위력수색을 명령하였습니다. 그것은 적정을 파악하기 위한 작은 규모의 공격작전이었습니다. 사실 그때에 남진을 중단하고 막정비에 들어간 중공군은, 방어작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둥지둥 물러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중공군은 후퇴하였고, UN군은 반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전은 결국, 의도중심 전략가 팽덕회와 전투력중심 전략가 워커와 릿지웨이, 벤틀리트, 그리고 쌍방의 예하 부대장들이, 서로 상대방의 전법을 실전을 통해서 경험하고 상당한 수준으로 이해하게 되었을 무렵, 전선이 소강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보물 중의 보물

병학자 클라우제비츠(Carl von Clausewitz)는 그의 명저 「전쟁론」에서 “모든 군사이론의 바탕에는 전쟁사(군사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프로이센군의 장교로서 나폴레옹의 군대와 싸워본 경험을 지닌 그는, 전쟁의 본질과 모든 군사이론의 이해와 습득에 있어서 전쟁을 몸소 겪어보는 ‘실전경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나 평시에 전쟁경험, 특히 전투경험을 해 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클라우제비츠는 전쟁의 ‘간접경험’으로서, 전쟁사의 중요성을 그토록 강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전쟁사를 통하여 타인의 생생한 전쟁경험을 나의 것으로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쟁론」의 곳곳에서 누누이 타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군인에게 있어서 전쟁사는 군사학(군사이론)의 ‘보물창고’와 같다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군사편찬연구소가 「군사」지 100호를 발간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보물창고에 100권의 보물이 차례로 진열되었다는 뜻입니다.

북괴군은 스탈린이 만든 군대입니다. 스탈린은 독일군과 싸워서 이긴 경험을 지닌, 정예 장교단을 파견하여 북한에 소련식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북괴군은 소련군의 조직을 본떠서 편성하였고, 소련의 무기로 장비하였고, 소련의 교리를 따라 훈련했고, 소련군이 작성해준 작전계획을 번역하여 남침을 했던 군대입니다. 6.25 전쟁의 초전기록은, 국군이 이들과 맞붙어 싸웠던 경험입니다. 그것은 사실 소련군을 상대로 싸운 경험에 버금가는 값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물과 같은 기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7월 중순 이후 국군은 UN군의 일부로 싸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승자였던 미군을 비롯하여 영국, 프랑스, 호주 등 서방의 정예부대와 협동 및 합동으로 작전을 수행하였습니다. 전자(前者)가 맞붙어 싸우면서 얻어낸 경험이라면, 후자(後者)는 Mentor를 옆에 두고 배운 경험입니다.

중공군의 포로를 제일 먼저 붙잡아 심문했던 지휘관은 백선엽 장군이었습니다. 16자 전법을 찾아 공부하면서 이들과 싸웠던 국군이, 이들의 강점과 약점을 다 파악하고, 그리고 나서 더 끈질기게 싸워서 이긴 백마고지 작전의 경험이, 우리의 창고에 생생한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보물입니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안전을 보장하기에 대단히 어려운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양의 전법도 알아야 하고, 서양의 군대도 알아야 합니다. 기동전도 배워야 하고, 산악을 누비는 전술도 익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도중심 전략가와 전투력중심 전략가들이 다 동원되어, 한반도의 독특한 지형과 기상의 특징에 맞게 구사했던, 전략과 작전술과 전투기술을 우리는 잘 헤아려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2차 대전에서 독일군과 일본군을 격파했던 연합군의 명장들이 대거 참여하고, 중국대륙의 국공내전에서 살아남은 적의 장수들이 다 들어와서

대회전을 전개했던 한국전의 경험들, 이 양자를 다 배워야 우리는 나라를 굳건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6.25 전쟁사’가 국군에게는 보물 중의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결언

만약에 1950년 그 이전에, 우리의 서재에 이 보물이 쌓여 있었다면, 국군은 초전에 기습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이 보물이 그때에 맥아더 장군의 서제에 진열되어 있었다면, 중공의 개입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중공군이 두들기는 팽과리 소리에 그렇게 놀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쓰라린 경험을 모아 정리하여 씹고 또 씹으면서, 국군은 성장하였습니다. 「군사」지는 전쟁사적 학술지 차원을 넘어 미래를 향한 국군의 발전에 방향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현장입니다. 이 위대한 경험이, 그리고 그 경험을 캐내어 엮어낸 우리의 「군사」지는, 한반도에 통일한국이 이루어지기 이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주변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통일한국을 지켜낼 수 있는, 국군과 국민을 키워내는 ‘국민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원고투고일: 2016.8.30, 심사수정일: 2016.9.5, 게재확정일: 2016.9.6.]

주제어 : 전투력중심전략, 의도중심전략, 손자, 클라우제비츠

<ABSTRACT>

The most valuable Treasure

Kim, Jae-chang

Traditionally, military strategists in Western society put focus on physical forces, whereas the strategists in Eastern world put focus mostly on the intent of the enemy commander.

When the Chinese forces entered in the Korean War, in 1950, the battle field was characterized by the competition between the two strategic cultures, strategies based on forces and on intent. The experiences from the strategies and operational arts based on the two different cultures provide us with the most valuable sources for the preparation of the national defense.

Key words : Strategy based on Intent, Strategy based on Forces, Sun-Tzu, Clausewitz

